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Family Stress and Family Strengths in Double-income Couples*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최정혜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Choi, Jeong-Hye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family stress and family strengths in double-income coup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1 double-income couples, in the Kyeongnam Area, Korea.

The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family stress of the husband and wife in double-income couples was 2.90 and 2.97, respectively, on a scale of 0-5.0.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economic level,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ouble-income couples' husband, and having a housework-helper, job satisfaction,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ouble-income couples' wife.

2) The degree of family strengths of the husband and wife in double-income couples was 3.84 and 3.82, respectively, on a scale of 0-5.0.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job satisfaction,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ouble-income couples' husband, and the educational level, job type,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ouble-income couples' wife.

3) There was a close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family stress and family strengths in the husband and wife of double-income couples.

주제어(Key Words): 맞벌이부부(double-income couple), 가족스트레스(family stress),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Corresponding Author: Jeong-Hye, Choi,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principal researcher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00 Gazwa-dong, Jinju, 660-701, Korea Tel: 82-55-751-5639 Fax: 82-55-756-5637 E-mail: jhchoi7@nongae.gsnu.ac.kr

* 이 논문은 대한가정학회 제58차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서론

오늘날 건강한 가족 만들기는 사회적 화두이다.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족불안정성이 증대하여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역시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결과라 생각되는데, 이는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 기초집단인 가족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활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건강을 가족분야에 접목시켜볼 때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을 규명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 맞벌이부부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으로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이고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맞벌이가족이다. 이제 맞벌이가족은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된 양상(김혜신, 김경신, 2003; 박주희, 2005)으로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1990년의 43.5%에서 2004년 50.3%로 나타났으며, 전체 여성취업자 중 78%가 기혼여성인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04) 앞으로 맞벌이부부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그런데 맞벌이가족은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맞벌이 아내의 경제활동은 양면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맞벌이아내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가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여해 온 역할이 그대로 지속되어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인인 동시에 여전히 '주부' 역할을 겸하도록 기대하기 때문에, 취업주부는 역할갈등, 시간갈등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 갈등은 가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채로, 이기영, 2004). 따라서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가정생활만족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영자, 1997; 채로, 이기영, 2004). 다음으로 맞벌이부부의 남편과 관련된 어려움으로는 최근 남편의 전통적 역할인 '부양자'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부모로서의 '양육자'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배우자'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김소영, 옥선화, 2000). 맞벌이 남편의 역할은 직업과 가족, 두 영역에서의 경험이 공유되고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김태현, 김양호, 2003; 홍성례, 유영주, 2001; Barnett, Marshall, Peck, 1992; O'Neal & Greenberger, 1994), 맞벌이 남편들의 아버지 역할 수행정도는 실제로 매우 낮게 나타나(김소영, 옥선화, 2000; 김태현, 김양호, 2003), 맞벌이부부 남편의 가족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맞벌이부부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이는 당연히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가일로에 있는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또한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분야로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주부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연구하거나(유영주, 2001), 가족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어은주, 유영주, 1995; 유계숙, 2004; 유영주, 2004a)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어서(어은주, 유영주, 1997; 정혜영, 오윤자, 2005) 가족건강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맞벌이부부 양쪽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 정도와 가족건강성을 연구하여 맞벌이부부의 삶의 특징적인 양상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맞벌이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는 부부별로 어떠한가,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은 부부별로 어떠한가,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에 따라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보고 하위영역을 부부역할 스트레스, 가사 관련역할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성인자녀 역할 스트레스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총체적인 가족스트레스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맞벌이가족은 사회적 통념상 일반가족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김경신, 권오남, 1996; 김양호, 김태현, 1998; 김혜신, 김경신, 2003; 채로, 이기영, 2004).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직업인, 부모라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며 이로 인한 역할갈등은 필연적이라 보고 있으며, 실제로 취업여성들은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하는 가정 내의 역할 때문에 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미, 2005; 전영자, 1997; 김혜신 외 1인, 2003; Beutell & Greenhaus, 1983; McCubbin & Patterson, 1983). 또 취업주부는 자신의 직업을 가족에 중

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역할긴장과 직업스트레스가 가중되며, 이런 경향은 맞벌이남편 역시 같은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양호, 김태현, 1998; 김태현, 김양호, 2003; 서혜영, 이숙현, 1999). 전영자(1997)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는 부모역할, 직업역할, 부부역할 순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부부의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맞벌이남편 역시 자녀양육과 가사영역에서 높은 역할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김경신, 김오남, 1996; 김선미, 2005; 서혜영, 이숙현, 1999; 최정혜, 2005)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를 시사하고 있다.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의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맞벌이남편과 아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유의한 변인은 교육수준, 가사조력자의 유무, 남편의 지지, 직종, 근무시간, 취업동기, 직업만족도, 부인의 직업지위, 성역할태도, 근무시간의 융통성, 사회적 지원, 등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경신 외 1인, 1996; 전영자, 1997). 또 맞벌이남편의 역할갈등에 유의한 변인은 소득, 막내자녀 연령, 남성의 성역할 태도 등으로 밝혀진바 있다(김소영 외 1인, 2000; 김양호 외 1인, 1998; 김태현 외 1인, 2003). 그 외 결혼만족도 변인이나 자아존중감 변인 등이 가족생활 관련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며(전영자, 1997; 최정혜, 2004), 직업 활동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만족하는 경향으로 정적인 상관이 있어(김경신, 권오남, 1996; 박주희, 2005) 직업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주제가 되고 있다(Barnett *et al.*, 1992; Kelly & Voydanoff, 1985).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관련 개인변인으로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직업만족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유영주(2004b)가 정의한 건강가족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맞벌이부부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 측정도구를 우리나라의 가족학 전공자들과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을 추출한 어은주와 유영주(1995)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가족원간의 유대, 문제해결능력, 대화기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등의 4개영역으로 선정하였다.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 선행연구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관련 연구로서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쪽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정희와 유영주(2001)는 도시가족의 건강성 관련연구

에서 전업주부는 가족건강성이 3.80, 취업주부는 가족건강성이 3.75로서 전업주부의 가족건강성이 취업주부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어은주와 유영주(1997)은 도시주부의 가족건강성이 3.88로 높다고 하였으며 양순미와 유영주(2001)는 농촌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연구하여 부모세대(40대 중반)는 3.55, 자녀세대(10대 중반)는 3.27임을 밝혔으며, 정혜영과 오윤자(2005)는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여 기혼여교사의 가족건강성이 3.98로서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정혜(2004)는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3.76임을 보고하였고, 홍성례와 유영주(2001)는 맞벌이 남편의 가족건강성 점수가 3.83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으로서 연령, 가족형태, 결혼만족도, 가족의 정신적 건강, 직업, 결혼지속년수 등을 보고한바 있으며(양순미, 유영주, 2001; 어은주 외 1인, 1997), 다른 선행연구(유영주, 2001; Brigman, Schons, & Stinnett, 1986)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가족의 소득수준과 종교 등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innett & Sauer, 1979; 어은주, 유영주, 1995). 홍성례와 유영주(2001)는 남편의 가족건강성이 직업의 종류, 남편의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최정혜(2004)는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부부의 교육수준, 종교, 직업의 종류, 결혼지속년수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결혼만족이 높은 가족이 가족건강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양순미, 유영주, 2001; 양순미, 2003; 최정혜, 2004), 자아존중감을 높게 가진 취업주부일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며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전영자, 1997). 직업만족도는 가정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신, 김오남, 1996; 박주희, 2005; 서혜영, 이숙현, 1999; 홍성례, 유영주, 2001; Galambos & Sibereisen, 1989), 특히 남성에게는 가족역할이 이차적이고 직업역할이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요인인 반면, 여성은 이와 반대로 직업역할은 이차적이고 가족역할이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김태현, 김양호, 2003; Barnett, 1994).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의 관련 변인으로 맞벌이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직업, 가정의 월수입 정도, 가족형태, 결혼지속년수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개인변인으로는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직업만족도를 포함시켰다.

3.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관계

본 연구에서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맞벌이부부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김선미, 2005; 김혜신 외 1인, 2003; 전

영자, 1997; Beutell & Greenhaus, 1983; McCubbin & Patterson, 1983)에서 자녀가 있는 취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직업인, 부모라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역할갈등은 필연적이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은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하는 가정 내의 역할 때문에 가족생활에서 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간의 어떤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취업주부는 자신의 직업을 가족에 종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역할긴장과 직업스트레스가 가중되며, 이런 경향은 맞벌이남편 역시 같은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양호, 김태현, 1998; 김태현, 김양호, 2003; 서혜영, 이숙현, 1999). 최정혜(2005)의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사용정도에 따라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볼 때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어떠한지 그 상관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 J시 지역의 맞벌이부부이다. 예비조사는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맞벌이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수정된 설문지로 본 조사는 2005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경남 J시에서 9개 어린이집 원생의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하였다. 총 270쌍에게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190쌍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71쌍 총 342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맞벌이부부의 연령은 남편의 경우 35세에서 40세 미만, 가장 많고, 아내는 35세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 과반수 이상(6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부부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표집대상을 자녀의 연령이 낮은 어린이집의 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상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교육수준을 엿볼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은 일반사무직이 가장 많고 아내의 직업은 교사·연구직이 가장 많았다. 가사일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전체에서 약 1/3정도였으며 돕는 사람은 남편 부모가 가장 많았고,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남편(171)	아내(171)	전체(342)	구 분		전체(342)
연 령	35세 미만	38(22.2)	65(38.0)	103(30.1)	자녀수	1명	58(17.0)
	35-40세 미만	54(31.6)	54(31.6)	108(31.6)		2명	248(72.5)
	40세-45세 미만	52(30.4)	39(22.8)	91(26.6)		3명 이상	36(10.5)
	45세 이상	27(15.8)	13(7.6)	40(11.7)			
교육수준	고졸이하	24(14.0)	39(22.8)	63(18.4)	맞이연령	7세이하	136(39.8)
	전문대졸	25(14.6)	36(21.1)	61(17.8)		초등생	120(35.1)
	대 학 졸	91(53.2)	83(48.5)	174(50.9)		중·고생	52(15.2)
	대학원 이상	31(18.1)	13(7.6)	44(12.9)		대학생 이상	34(9.9)
종교유무	없 음	87(50.9)	71(41.5)	158(46.2)	가족형태	확대가족	66(19.3)
	있 음	84(49.1)	100(58.5)	184(53.8)		핵가족	276(80.7)
직 업	교수·전문직	6(3.5)	7(4.1)	13(3.8)	가정의 월수입 정도	200만원 미만	14(5.2)
	교사·연구직	31(18.1)	59(34.5)	90(26.3)		200-300만원 미만	70(26.1)
	관리직	26(15.2)	6(3.5)	32(9.3)		300-400만원 미만	82(30.6)
	일반사무직(공무원)	48(28.1)	50(29.2)	98(28.7)		400-500만원 미만	60(22.4)
	생산·판매·기술직	40(23.4)	23(13.5)	63(18.4)		500만원 이상	42(15.7)
	기 타	20(11.7)	26(15.2)	46(13.5)			
가사일 도움유무	없 다			236(69.0)	확대가족 유형	남편부모와 동거	56(84.8)
	있 다			106(31.0)		아내부모와 동거	10(15.2)
돕는사람	고 용 인			20(18.9)	결혼지속 년수	5년 미만	38(11.1)
	남편부모			46(43.4)		5년-10년 미만	152(44.5)
	아내부모			38(35.8)		10년-15년 미만	78(22.5)
	기 타			2(1.9)		15년-20년 미만	38(11.1)
						20년 이상	36(10.5)

다. 말이연령은 7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대부분이고, 확대가족의 경우는 주로 남편부모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정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지속년수는 5년에서 10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결혼지속년수가 20년 이상에서 10%정도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연령에서 45세 이상이 11%정도 있는 결과와 연관되어 최근의 늦둥이 낳기 경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 문항과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척도, 가족건강성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직업만족도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가족스트레스 척도는 최정혜(2002)의 척도를 이용하여 부부역할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가사 관련 스트레스, 성인자녀역할 스트레스 등 4개영역, 총 18문항의 가족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91이었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최정혜(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가족건강성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가족원간의 유대, 문제해결능력, 대화기술, 가족원간의 가치체제 공유 등의 4개 영역,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항상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96이었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슴(Schumm)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MSS척도를 연구에 적용한 최정혜(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 배우자로서 남편,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3문항으로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94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와 Krause & Tran의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최정혜의 척도(2002)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4문항 중에서 2문항은 긍정적인 문항, 2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통계처리 시 역산하였다. 신뢰도 계수

는 Cronbach' α =.75였다. 직업만족도 척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만들었으며, 직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84였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 분석, 평균, 대응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Duncan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직업만족도, 가족스트레스를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은 평균값으로 하였다. 즉 결혼만족도 평균값 5.2008, 자아존중감 평균값 3.7975, 직업만족도 평균값 3.7446, 가족스트레스 평균값 2.9347점을 기준으로 평균값보다 점수가 낮으면 낮은 집단, 평균값보다 점수가 높으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및 관련 변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맞벌이부부 남편의 전체 가족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90, 아내는 2.97로 나타났다. 맞벌이아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대응표본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자녀역할 스트레스'가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내는 '가사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나 부부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영역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의 경우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자녀역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아내는 '가사

<표 2>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 (N=171쌍)

구 분	남 편	아 내	paired t-test
	M SD	M SD	
전 체 스트레스	2.90(.68)	2.97(.71)	1.35
부부역할 스트레스	2.80(.76)	2.73(.77)	-1.16
가사관련 스트레스	2.84(.80)	3.21(.91)	5.33***
부모역할 스트레스	3.15(.86)	3.17(.85)	.37
자녀역할 스트레스	2.90(.86)	2.79(.83)	-1.77

***p<.001

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높은 반응을 보여, 맞벌이부부가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공통으로 느끼지만 그 외 영역에서는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어 부부간에 가족스트레스 인식과 관련하여 갈등 측면을 시사한다 하겠다.

특히 '가사관련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결과는 맞벌이부부의 가족생활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 관련 영역에서 역할부담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김경신, 권오남, 1996; 조희금, 1999; 채로 외 1인, 2004)에서 맞벌이 부부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취업주부는 직장과 가정일 사이의 갈등으로 남편보다 갈등이 더 많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부부가 공동으로 크게 느껴 남편과 아내 모두 3점 이상의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맞벌이가족의 가장 큰 단점이 자녀양육이라고 밝힌 선행연구들(김경신, 권오남, 1996; 박주희, 2005; 조희금, 1999; 채로 외 1인, 2004; 최정혜, 200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부부역할 스트레스'였다. 본 결과는 맞벌이부부의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가장 낮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부모역할'이나 '가사 관련' 스트레스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서 정작 부부자신에 관한 스트레스는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은 가정의 월수입정도($p < .05$), 자아존중감($p < .01$), 결혼만족도($p < .001$) 수준에 따라, 아내는 가사조력자 유무($p < .05$), 직업만족도($p < .001$), 자아존중감($p < .001$), 결혼만족도($p < .01$)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 남편은 가정의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스트레스를 적게 느꼈으며,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맞벌이부부 아내는 가사조력자가 있을 때가 없는 경우보다 가족스트레스가 적었으며, 직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볼 때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 등의 개인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 및 관련변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맞벌이부부 남편의 총체적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84, 아내는 3.82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어은주와 유영주(1997)의 도시주부의 가족건강성 3.88점이나, 홍성래와 유영주(2001)의 남편의 가족건강성 3.83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정혜(2004)의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3.76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즉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은 홍성래와 유영주(2001)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특별히 맞벌이부부라는 조건 때문에 가족건강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족문제 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도 남편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본 결과는 '가족원간의 유대'가 일순위로 나타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가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해 나가는 상황에서 가족과의 단란함을 도모할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원간의 결속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난 '가족문제 해결 수행능력'은 맞벌이부부라는 특성을 가진 직장인답게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순위로 나타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맞벌이부부의 바쁜 생활양식과 부부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영역은 관련 선행연구(양순미 외 1인, 2001; 어은주 외 1인, 1997; 홍성래 외 1인, 2001)보다 더 낮게 나타나 이 영역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가 관련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의 순위가 다른 점이다. 어은주와 유영주(1997)의 연구에서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과 '가족문제 해결 수행능력'이 두 번째 순위로 함께 나타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의 두 번째 순위로 '가족문제 해결 수행능력'이, 세 번째 순위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나타나 작은 수치의 차이기는 하지만 '가족간의 의사소통' 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점은 맞벌이부부라는 생활양식을 감안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라는 생활양식이 부부가 서로의 직장생활에 바빠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소원해지기 쉬운 상황인데 만약 부부간의 의사소통마저 낮아진다면 결과적으로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관련변인들을 살펴보면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남편의 가

〈표 3〉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N=171쌍)

변 인		남 편				아 내			
		N	M	F(t)	D	N	M	F(t)	D
연 령	35세 미만	38	2.92	1.29		65	2.99	.32	
	35세-40세 미만	54	2.90			54	2.97		
	40세-45세 미만	52	3.00			39	2.89		
	45세 이상	27	2.68			13	3.09		
교육수준	고졸이하	24	3.07	1.20		39	3.05	.70	
	전문대졸	25	2.70			36	2.82		
	대 학 졸	91	2.91			83	2.99		
	대학원 이상	31	2.90			13	3.00		
종교유무	없 음	87	2.88	-.29		71	2.96	-1.14	
	있 음	84	2.92			100	2.98		
자 녀 수	1명	29	2.97	.39		29	2.88	.30	
	2명	124	2.90			124	2.99		
	3명	18	2.79			18	3.02		
직 업	교수·전문직	6	2.77	2.03		7	2.52	1.20	
	교사·연구직	31	2.84			59	3.02		
	관리직	26	2.79			6	3.08		
	일반사무직(공무원)	48	3.11			50	3.06		
	생산·판매·기술직 기 타	40 20	2.94 2.59			23 26	2.97 2.78		
가정월수입 정도	200만원 미만	24	2.95	2.36*	B	24	2.99	.92	
	200-300만원 미만	45	2.97		B	45	2.94		
	300-400만원 미만	38	3.06		B	38	3.14		
	400-500만원 미만	32	2.88		B	32	2.92		
	500만원 이상	32	2.59		A	32	2.83		
가족형태	확대가족	33	2.71	-.24		33	2.72	-.32	
	핵 가족	138	2.95			138	3.03		
가사조력자 유무	없 다	118	2.94	1.19		118	3.05	2.22*	
	있 다	53	2.80			53	2.79		
결혼지속년수	5년 미만	19	2.96	1.20		19	3.07	.51	
	5년-10년 미만	76	2.93			76	2.94		
	10년-15년 미만	39	3.00			39	3.01		
	15년-20년 미만	19	2.63			19	2.80		
	20년 이상	18	2.75			18	3.07		
직업만족도	낮은 집단	86	2.99	1.76		75	3.17	3.42***	
	높은 집단	85	2.81			96	2.81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80	3.07	3.10**		84	3.15	3.41***	
	높은 집단	91	2.75			87	2.79		
결혼만족도	낮은 집단	53	3.23	4.43***		89	3.10	2.55**	
	높은 집단	118	2.75			82	2.83		

*p<.05, **p<.01, ***p<.001

〈표 4〉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 정도 (N=171쌍)

구 분	남 편	아 내	paired t-test
	M SD	M SD	
총체적 가족건강성	3.84(.66)	3.82(.59)	-.53
가족원간의 유대	3.99(.67)	3.97(.60)	-.3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84(.75)	3.82(.69)	-.09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3.64(.70)	3.61(.62)	-.56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3.87(.68)	3.87(.62)	-.82

족건강성은 직업만족도(p<.001), 자아존중감(p<.001), 결혼 만족도(p<.001), 가족스트레스(p<.001)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남편의 가족건강성은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맞벌이남편의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어은주 외 1인, 1997; 최정혜, 2005; 홍성례 외 1인,

〈표 5〉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N=171쌍)

변 인		남 편				아 내			
		N	M	F(t)	D	N	M	F(t)	D
연 령	35세 미만	38	3.81	.48		65	3.72	2.08	
	35세-40세 미만	54	3.92			54	3.92		
	40세-45세 미만	52	3.81			39	3.91		
	45세 이상	27	2.74			13	3.60		
교육수준	고졸이하	24	3.63	1.62		39	3.56	3.81**	A
	전문대졸	25	3.73			36	3.90		B
	대 학 졸	91	3.87			83	3.86		B
	대학원 이상	31	3.99			13	4.07		B
종교유무	없 음	87	3.76	-1.44		71	3.88	1.29	
	있 음	84	3.91			100	3.77		
자 녀 수	1명	29	4.00	.09		29	3.92	.52	
	2명	124	3.77			124	3.79		
	3명	18	4.03			18	3.87		
직 업	교수·전문직	6	4.08	.77		7	4.44	5.35***	D
	교사·연구직	31	3.95			59	3.90		B
	관 리 직	26	3.94			6	4.12		C
	일반사무직(공무원)	48	3.79			50	3.87		B
	생산·판매·기술직	40	3.76			23	3.42		A
	기 타	20	3.71			26	3.64		B
가정월수입 정도	200만원 미만	24	3.58	1.56		24	3.40	4.01**	A
	200-300만원 미만	45	3.92			45	3.88		B
	300-400만원 미만	38	3.76			38	3.81		B
	400-500만원 미만	32	3.87			32	3.91		B
	500만원 이상	32	3.96			32	3.96		B
가족형태	확대가족	33	3.84	.01		33	3.71	-1.09	
	핵 가족	138	3.83			138	3.84		
가사조력자 유무	없 다	118	3.83	-.11		118	3.81	-.07	
	있 다	53	3.84			53	3.82		
결혼지속년수	5년 미만	19	3.86	.04		19	3.77	.96	
	5년-10년 미만	76	3.83			76	3.82		
	10년-15년 미만	39	3.85			39	3.79		
	15년-20년 미만	19	3.84			19	4.03		
	20년 이상	18	3.78			18	3.67		
직업만족도	낮은 집단	86	3.67	-3.35***		75	3.62	-3.84***	
	높은 집단	85	4.00			96	3.97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80	3.58	-5.09***		84	3.61	-4.89***	
	높은 집단	91	4.06			87	4.02		
결혼만족도	낮은 집단	53	3.32	-7.96***		89	3.56	-6.56***	
	높은 집단	118	4.07			82	4.09		
가족스트레스	낮은집단	86	3.97	2.67***		76	3.96	2.87**	
	높은집단	85	3.70			95	3.71		

p<.01, *p<.001

2001)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다는 관련 선행연구(최정혜, 2005)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맞벌이아내의 가족건강성은 교육수준(p<.01), 직업(p<.001), 가정의 월수입정도(p<.01), 직업만족도(p<.001), 자아존중감(p<.001), 결혼만족도(p<.001), 가족스트레스(p<.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아내

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 이는 관련 선행연구(최정혜, 2004)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또 맞벌이아내의 직업이 생산·판매·서비스직일 때 가장 낮고 다음으로 일반사무직, 교사·연구직, 교수·전문직 순으로 계속 높아져서 직업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선행연구(홍성례 외 1인, 2001; Knaub, 1985; 재인용, 어은주 외 1인, 1997)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맞벌이아내의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

수록 가족건강성도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서 가정의 월수입 정도가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관련변인임을 보여주었으며, 본 결과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최정혜(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나, 가족의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가족건강성이 낮다고 보고한 다른 선행연구(유영주, 2001: 356-357)와는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아내의 가족건강성은 직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이 원만하다는 선행연구(김경신 외 1인, 1996; 서혜영 외 1인, 1999; Galambos & Sibereisen, 1989)나 직장과 가족의 상호연관성을 언급한 연구들(박주희, 2005; Barnett, 1994; Williams & Allinger, 1994)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또 맞벌이아내의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변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어은주 외 1인, 1997; 최정혜, 2004)과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맞벌이아내의 가족건강성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결혼만족도가 가족건강성과 정적인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양순미 외 1인, 2001; 어은주, 유영주 1997; 최정혜, 2004; 홍성례, 유영주, 2001)를 지지하고 있다. 맞벌이아내의 가족건강성은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가족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3.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어떠한지 그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6>, <표 7>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명목변인은 더미처리 하였는데, 종교는 없으면 0, 있으면 1로, 직업은 일반사무직 이하는 0, 관리직 이상은 1로,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은 0, 핵가족은 1로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맞벌이남편의 가족스트레스는 가족건강성과 부적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0$). 즉 맞벌이 남편의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아내의 가족스트레스 역시 가족건강성과 부적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7$). 즉 맞벌이아내의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간에 각각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론적 배경에서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간에 어떤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맞벌이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간에 부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가족역할이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태현, 김양호, 2003; Barnett, 1994)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6> 맞벌이부부 남편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의 상관관계

(N=171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00													
2	.12													
3	.08	-.08												
4	.39**	-.12	.08											
5	-.20**	-.49**	-.05	-.11										
6	.32**	.44**	-.06	.06	-.32**									
7	.06	.15	-.11	.05	-.09	.17*								
8	-.02	.09	.01	-.07	-.06	.09	-.51**							
9	.78**	-.07	.12	.40**	-.16*	.12	.05	-.09						
10	-.09	.15*	.07	-.18*	-.12	.20*	-.03	.05	-.09					
11	-.01	.19*	.07	-.01*	-.16*	.12	.10	.05	-.04	.52**				
12	-.12	.25**	.06	-.14	-.09	.11	.05	.12	-.12	.33**	.28**			
13	-.06	-.03	.02	-.07	-.01	-.16*	.14	-.09	-.11	-.25**	-.15*	-.31**		
14	-.05	.17*	.11	-.02	-.15	.12	.00	.01	-.02	.46**	.33**	.61**	-.30**	1.00

* $p < .05$, ** $p < .01$

1: 연령 2: 교육수준 3: 종교 4: 자녀수 5: 직업 6: 월수입정도 7: 가족형태 8: 가사조력자 유무 9: 결혼지속기간 10: 자아존중감 11: 직업만족도 12: 결혼만족도 13: 가족스트레스 14: 가족건강성

〈표 7〉 맞벌이부부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의 상관관계

(N=171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00													
2	-.01													
3	.05	-.08												
4	.34**	-.14	.10											
5	-.13	-.55**	.01	.03										
6	.27**	.35**	-.15	.06	-.30**									
7	.05	.04	-.08	.05	-.08	.18*								
8	-.08	.16*	-.07	-.06	-.04	.12	-.49**							
9	.82**	-.19*	.07	.40*	-.01	.11	.05	-.10						
10	-.20**	.20*	.00	-.18*	-.03	.17*	.01	.08*	-.19*					
11	.13	.21**	.06	.03	-.18*	.16*	-.03	.06	.04	.46**				
12	-.02	.19*	.00	-.07	-.21**	.21**	.19*	-.03	-.03	.28**	.22**			
13	-.01	-.01	.01	.05	-.04	-.06	.18*	-.17*	-.01	-.30**	-.29**	-.21**		
14	.04	.22**	-.09	-.04	-.28	.22**	.09	.01	.00	.49**	.43**	.57**	-.37**	1.00

*p<.05, **p<.01

1: 연령 2: 교육수준 3: 종교 4: 자녀수 5: 직업 6: 월수입정도 7: 가족형태 8: 가사조력자 유무 9: 결혼지속기간 10: 자아존중감
11: 직업만족도 12: 결혼만족도 13: 가족스트레스 14: 가족건강성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활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건강을 가족분야에 접목시켜 볼 때 현대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건강성을 규명해 보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 여겨 시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맞벌이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경남지역 중소도시인 J시의 맞벌이부부 171쌍, 342명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남편은 평균 2.90, 아내는 2.97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남편은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자녀역할 스트레스'가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난 반면 아내는 '가사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나타나 부부간에 가족스트레스를 느끼는 영역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사 관련 스트레스'는 부부간에 차이가 많이 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관련변인은 남편의 경우, 가정의 월수입 정도,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등인데 비해 아내는 가사조력자 유무, 직업만족도,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남편은 평

균 3.84, 아내는 3.8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관련변인은 남편의 경우 직업만족도,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가족스트레스 등인데 비해 아내는 교육수준, 직업, 가정의 월수입정도, 직업만족도,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가족스트레스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관계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일로에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향성을 생각할 때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맞벌이 아내가 남편에 비해 '가사 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맞벌이아내가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맞벌이 아내의 가사 관련 어려움에 대해 남편의 인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부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맞벌이부

부 모두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문제를 활성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은 높게 나타난 편이지만 앞으로 더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을 더 높이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하위영역에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맞벌이부부의 바쁜 생활을 고려해 볼 때 맞벌이부부의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해 개선을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셋째,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직업만족도,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등의 개인변인이 나타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함께 개인변인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통해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 가족스트레스 정도를 경감시켜야 함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새로운 시사점은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가족건강성이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맞벌이부부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및 제한점을 보면 첫째, 본 연구는 맞벌이부부 남편과 아내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맞벌이부부와 일반부부를 비교한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연구가 비교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맞벌이부부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표집에 있어서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 유의표집을 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벌이부부에 대한 전국적인 표집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맞벌이부부의 가족생활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김경신, 권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선미(2005). 맞벌이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05-116.
 김소영, 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7.
 김양호, 김태현(1998).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1), 81-94.
 김태현, 김양호(2003). 중년남성의 남성역시,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김혜신, 김경신(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7-131.
 박정희, 유영주(2001).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313-350.
 박주희(2005). 취업주부의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17-131.
 서혜영, 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257-280.
 양순미(2003).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부부문제해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31-49.
 양순미, 유영주(2001). 부모와 자녀세대가 인지한 농촌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의 특성 연구.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351-384.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1-94.
 어은주, 유영주(1997).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유계숙(2004). 건강가족요소에 관한 연구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_____(2004a).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_____(2004b). 건강가족 확산을 위한 실천적 과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3-11.
 전영자(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5.
 정혜영, 오윤자(2005). 기혼 여교사의 가족건강성과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25-37.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 채 로,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최정혜(200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49-60.
-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 최정혜(2005).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11-26.
- 통계청(2004). <http://www.nso.go.kr>
- 홍성례, 유영주(2001). 기혼남성의 가족·직업 역할중요도 인식과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19-134.
- Barnett, R. C. (1994). Home-to-work spillover revisited: A study of full time employed women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47-656.
- Barnett, R. C. Marshall, Nancy L., & Peck, J. H. (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May), 358-367.
- Beutell, N. J., & Greenhaus, J. H. (1983). Integration of home and non-home roles: Women's coping and conflic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 43-48.
- Brigman, K. M. L. Schons, J., & Stinnett N. (1986). Strengthen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A study of strong families in Iraq. *Family Perspective*, 20, 61-73.
- Galambos, N. L., & Sibereisen, R. K. (1989). Role strain in West German dual-career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323-330.
- Kelly, R. F., & Voydanoff, P. (1985). Work/family role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3), 367-374.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 J. M. Patterson (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 O'Neal, R., & Greenberger, E. (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01-118.
- Stinnet, N., & Sauer, K. H. (1979).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 3-11.
- Voydanoff, P. (1991).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재인용,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Williams, K. J., & Alliger, G. M. (1994). Role stressors, mood spillover, and perceptions of work-family conflict in employed parents. *American Management Journal*, 37, 847-868.

(2006년 2월 27일 접수, 2006년 5월 3일 채택)